

새 해 시방세계 장엄하니 처처가 화엄세계

한량없는 보배·大施門 열려

법전스님 조계종 종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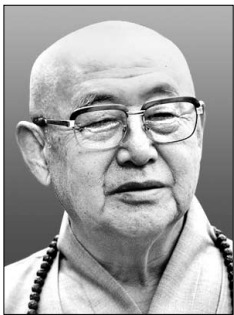


천지가 열리기 이전 신령스럽고 찬란한 빛이 있어 /만물의 아름다운 덕성과 차별없는 지혜를 빚어내어 /새아침 시방세계를 장엄하니 /모든 마왕은 호법의 선신(善神)이 되고 /대지(大地)는 변화하여 진불(眞佛)의 국토를 이루니 /처처(處處)가 화엄세계(華嚴世界)요 두두물물(頭頭物物)이 진리의 몸을 이룹니다.

(중략) 사람마다 갖추고 있는 생명의 참다운 빛은 /본래부터 원만하여 증감이 없고 /두루하여 비추지 않는 곳이 없으나 /구하려 면 얻을 수 없고 버릴려고 해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본래 이루어졌으니 옛 것이 아니요 신령스러워도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허절영통(虛徹靈通)한 이 속에 한량없는 보배와 대시문(大施門)이 열려있어 /거두어 들이면 티끌 속에 사해(四海)가 포함되고 /떨치면 우주법계에 가득한 무생복락(無生福樂)의 기쁨을 누구나 얻게 하니 /이것이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의 풍류(風流)요, /일면불(日面佛)과 월면불(月面佛)의 본분사입니다. (후략)

욕망·집착 버리면 밝은 천하

덕암스님 태고종 종정



해가 바뀌어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집착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지나친 욕망과 집착은 창조와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물질들을 파생시키고 있으며, 그 물질들은 다름의 씨앗이 되어 인간들에게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환경을 파괴시켜 인간의 복되고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성의 근본은 양심과 자애와 예절과 수치심이 본질이며, 이것을 잘 지키고 향유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부처님의 교지(敎旨)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 무엇이든 가득채우려는 지나친 욕구를 접고 가진 것을 하나 둘씩 털어내고 비워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한물건도 가지지 않았고 세상을 떠날 때 또한 빈손으로 가네. /장차 한물건도 가지고 갈수 없거든 욕심부려 내 몸에 업만 뒤따르네 /욕망과 집착을 함께 버리면 밝은 천하를 얻게 될 것인저 /승히 이와같이 행하는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으리라.

깨고 깨어 제법실상 바로 보라

도용스님 천태종 종정



佛放眉間白毫光(불방미간백광) 廣照東方萬八千(광조동방만팔천) 卽說妙法汝當知(즉설묘법여당지) 從佛口生佛衣覆(종불구생불의부)

“미간백호 광명 놓아 동방세계 비추시니 설하시는 묘한 법문 네 마땅히 알지니 우리모두 부처 닮은 부처님의 자녀이세”
꿈속에서 꿈을 꾸니 깨고 봐도 또 꿈이라 깨고 깨고 다시 깨어 제법실상 바로 보라 밝고 밝은 이 자리가 화장세계 그 아닌가
나무 일체중생회견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일월등명여래불

화합으로 풍요로운 삶 서원

헤일 대종사 진각종 종인



천지만물은 그 뿌리가 하나요/ 동서고금의 역사는 한가지의 꽃이로다/ 물을 차고 떠오르는 아침 태양이 사바를 비추니/ 바람은 고요하고 허공은 창창한데 오로지 심인의 소리뿐이로다/알과 뒤를 논하고 본과 말을 논하는 것들일랑 청정바다에 던지고/ 선과 악과 옳고 그름도 모두 놓아 버려라/ 비로자나 법바뀌는 오직 허공을 상대하고/ 군생들의 인락함이 곧 마음에 있음을 알게 함이로다.

이 세상의 많은 생명들이여! /귀 기울여 자연의 소리를 들어라. /하나의 달이지만 천 강에 비치면 천 개의 달이 된다. /하루는 24시요, 일년은 12달이라 /하늘과 땅과 중생들이여! 삼삼오오 때를 지어 탐진치 삼독을 잠재우고 /몸과 입과 뜻을 모아 육자진언을 노래하세! /해탈의 노래를 하세! 음! /부처님은 공경의 대상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천의 대상이요. /승단은 화합의 대상이다. /자타를 융합하는 화합정신으로 새해에는 온 세상이 대오각성 하여 /안심입명과 풍요로운 삶이 되도록 다함께 마음 모아 서원 정진합시다.

보은의 한해 되도록 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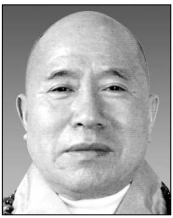
총지종 록정 종령



새해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갚는 한 해가 되도록 합니다. 은혜 갚는 행동이란 항상 배푸는 마음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비록 생사에 있으나 선군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는 선군이 끊어지는 것이니, 이런 까닭에 모든 부처님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사람을 칭찬하시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은 대비(大悲)의 근본이며, 선업(善業)을 여는 첫 문이며, 구경 불도에 이르는 문입니다. 보은을 나의 수행지점으로 삼아서 은혜 갚는 일에 정진합시다.

흠어진 민심 한마음으로 역자

정각스님 법륜종 종정



계미년 새해 우리들은 무엇보다 민족 화해와 국민 통합을 앞당기는 일에 결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 계층 세대 빈부 등 낱말이 흠어진 민심을 한마음으로 엮어내는데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거대한 대한민국이 민족의 저력대로 세계의 중심에 서게 하는 것은 특별해 보이는 이들의 몫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위가 보장없고 자신의 일이 하찮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성심껏 맡은 직분에 충실할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삶의 참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곧은 길입니다.

세계인류 영원한 화합 이루세

지명스님 조동종 종정



正偏回互 萬法圓融 佛光普照 洗淨穢土 /禪蜜教重興 普度衆生 癸未黎明 平統世和 (정편회호 만법원융 불광보조 세정에도 /선밀교중흥 보도중생 계미여명 평통세화)
본체와 현상이 원용하여 결림이 없으니, 불타의 자비광명 널리 고무 비추사 사바에도 정정하게 세척정화하여 선의 비밀한 가르침 증흥하여 모든 중생 제도하며 계미년도의 새 아침이 밝아오에, 남북은 평화로써 통일 이룩하고 세계인류는 화합으로 정도에 머무오리.

이웃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해안스님 보문종 종정



찰나찰나 지은 업은 언젠가 자신이 받는 것임에 맺은 자가 자기라면 푸는 자 또한 남이 아닌 자신인 것입니다. 이런 밀밀(密密)한 부처님의 인과도리를 깨달아야 무명으로 뒤덮인 본성을 되찾을 것입니다. 베를기보다는 탐욕과 분노로 성현의 지혜의 말씀에 따르기보다는 어리석음으로 지냈던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참회합시다. 새 해, 억겁의 시간속 인연을 함께 하는 이웃의 고통을 곧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보듬겠다는 보살행의 서원을 세워 실천합시다. 실천은 사무치는 자기 수행정진에서 비롯됩니다.

주체성 찾아 우주 주인공 되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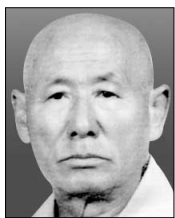
일공스님 원용종 종정



人皆蔽圓光 不知在此心 戒定慧修如 智慧大光明 사람마다 원만한 빛을 감추고 있건만 모두가 자기 마음에 있음을 알지 못하니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온갖 비뚤고 어두운 길을 버리고 바르고 밝은 길을 밟으니 마음의 온갖 번뇌와 흔들림에서 벗어나 안정되고 자기의 잃어버린 주체성을 찾아 우주의 주인공이 되어 지혜의 광명을 발견하여 사세를 가장 올바르게 고 슬기롭게 살게 될 것이다.

어서 깨달아 중생을 건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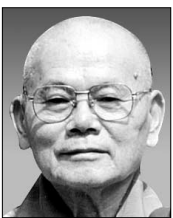
봉암스님 일부선교종 종정



시간은 머물지 않아 한 달 두 달 지나가니 늙음이 재촉하고 일년 이년 흘러가 한없이 세월이 가네. 명예와 재물은 아침이슬과 같고, 괴로움과 영하로움은 저녁연기다. 간절히 복짓기를 원하오니 어서 깨달아서 중생을 건지라. 이생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오는 생애 한없이 한탄하노라.

청산녹수 벗해 득안심정을

도암스님 대승종 종정



팅 빈 산,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두런 두런 말소리만 들려오네. 저녁 햇살, 깊은 숲 속 꿩고 들어 또다시 푸른 이끼 비추네. 중생들이여, 번뇌에 고통스러우신가. 그렇다면 새해에는 산행을 한번 해 보시라. 득안심정(得安心淨)하리니, 산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계이기는 하나 심산유곡에는 붓을 들어 그리지 않았어도 청산명화가 있고, 줄이 없어도 만고불변의 거문고 소리를 내는 계곡물이 있지 않은가. 청산녹수를 벗하여 대자연의 고마운 선물을 즐겨보시라.

아미타불 원력으로 정토 실현

태허스님 본원종 종정



其佛本願力 聞名欲往生 皆悉到彼國 自到不退轉 <무량수경>에서 말한 법구입니다. 본원종이라는 종명은 여기서 말한 본원이니 아미타불의 인행시에 법장보살이 수역천 만년전에 세자재왕불에게 사십팔대원을 말할 때 제십팔원이 본 뜻을 말하는 동시에 이상의 법구를 말 하였습니다. 이상의 법구에서 본원이라는 뜻을 따라 종명을 정하였으니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해서 너나가 함께 불도를 이루면 이땅에 불국토가 실현 될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길

해안스님 무량종 종정대행



우리 모두가 보살심으로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남과 이웃을 나보다 먼저 위하는 마음이 앞설 때 동서가 화합하고 남북이 화합하여 우리 민족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너와 나와 미움이 사라지고 원결이 풀리고 방방곳곳에 우담바라가 춤을 추고 온세계가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늘진 곳에 희망과 용기를 주고 병든 이에게 어진 친구가 되고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하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온세게 온 인류가 한송이 꽃이 되고 방방곳곳이 불국토가 될 것입니다.

오대양 육대주 희망의 새 씨앗

열반종 해곡 종정



삼천리 금수강산에 계미년의 새 태양이 떠오른다. 이땅에 드리웠던 무명의 장막이 걷히고, 화합과 평화의 신천지가 펼쳐진다. 일체중생이 실유불성이니 만인이 천백역화신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온 몸으로 누리며, 오대양 육대주에 희망의 새 씨앗을 뿌린다.

신년법어 전문 buddhanews.com